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의 차이

정경아, 김봉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The Differences of the Ego-Resilience and Disagreement in Parents' Rearing Attitude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Kyung-A Jung, Bong-Whan Kim

Dept. of Graduate School Education, Sook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자아탄력성과 부모양육태도의 일치성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됨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17명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고위험 사용자군 17명(5.3%),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50명(15.8%), 일반 사용자군 250명(78.9%)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21.1%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자아탄력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개인요인인 자아탄력성과 가정환경요인인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부모가 일치된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자아탄력성, 부모양육태도 불일치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of the ego-resilience and disagreement in parents' rearing attitude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To conduct this study, 317 adolesc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 smartphone addiction rate was 21.1%, which the high risk group rate was 5.3% and potential risk group rate was 15.8%. Second, ego-resilience was indicated to be lower in the high risk user group than the potential risk user group and the general user group, and disagreement in parents' rearing attitude was indicated to be higher in the high risk user group than the general user group, thereby having indicate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ould be known that ego-resilience and agreement of parents' rearing attitude was significant factors to prevent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Key Words : Adolescent, Smartphone Addiction, Ego-resilience, Disagreement in parents' rearing attitude

Received 2 November 2014, Revised 8 December 2014

Accepted 20 February 2015

Corresponding Author: Kyung-A Jung(Sookmyung University)

Email: yeoene@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연구목적 및 연구배경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만 5세에서 54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수는 72%로,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중독위험군은 2012년 7.2%에서 7%로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2012년보다 0.7% 상승한 11.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중독위험군 비율은 2012년보다 7.1% 상승한 25.5%로, 8.9%인 성인보다 2.9배 높고,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빠른 진행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1].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삶에 편리함과 변화를 가져다준 기능적 특성이 있다. 반면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을 과다사용 할 경우,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고[2], 정신건강 및 대인관계, 일상생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3].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문제는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와 우울 및 공격성, 충동성의 증가[4,5], 가족 및 친구들과의 대화단절[3], 유해 어플리케이션 접촉[6] 등이 나타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기특성과 성인보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더 늘어날 수 있고, 이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스마트폰 도입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짐에 따라 2010년 이후 관련 연구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 가운데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중독 연구를 살펴보면, 충동성[5], 자기통제력 및 우울[7], 부모양육태도[8], 공격성과 또래애착[9] 등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3]. 반면 이상의 연구들은 스마트폰 중독 관련 요인에 초점을 두면서, 중독 위험군과 일반 사용자군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청소년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즉 중독 위험군과 일반 사용자군을 구분하여,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김병년, 고은정, 최홍일[7]은 중독 위험군은 환경적인 요인에, 일반 사용자군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면서, 중독 위험군과 일반 사용자군의 구별된 특징을 보여주었다. 조현옥[10] 또한 중독 위험군과 일반 사용자군 간에 충동성과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나타났음을 보여주었고, 이은정, 어주경[11]의 연구에서도 중독 위험군과 일반 사용자군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볼 때,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과 일반 사용자군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각 집단에 맞는 중독예방 및 치료적 접근과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을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나누어 집단별 차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스마트폰 중독수준별 차이를 검증함에 있어 먼저, 개인요인으로 스트레스나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고 적응적으로 살아가는 성격특성으로 밝혀지고 있는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중독에 유용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지고 있고[12],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은 집단이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았다는 연구[13]를 토대로, 스마트폰 중독수준별로 자아탄력성이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유추하였다. 또한 부모양육태도 불일치가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이 됨을 밝힌 연구[14]를 바탕으로 하여, 부모양육태도 불일치가 스마트폰 중독수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의 자아탄력성이라는 개인성격 특성과 부모양육태도 불일치라는 가정 환경적 특성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수준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예방과 치료가 중독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폰 중독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에 대

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 초조함을 느끼며,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이 나타남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다[15].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은 일상생활장애, 가상대인관계지향, 내성, 금단의 4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16]. 즉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 초조 등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경험하고, 스마트폰에 의존, 집착하게 됨으로, 내성과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관련 연구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현대인의 생활 속에 빠르게 침투하였고,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몰입, 의존,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행된 스마트폰 중독관련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결과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2,3,10]. 이에 스마트폰 중독 요인과 그로 인한 정서적, 신체적, 대인관계적, 일상생활에서의 영향 등에 대해서 잘 밝혀지고 있다.

반면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대상자들, 즉 일반 사용자군과 중독 위험군을 함께 표집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스마트폰 중독수준별로 나누지 않고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각 집단의 특징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중독 수준별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에 각 집단별 특징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내, 외적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자아탄력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성격특성이다. Block은 자아탄력성을 개인이 처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자아통제수단을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동기조절능력과 인지적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17]. 선행 연구는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위기상황에서도 통제력을 가지고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해 낸다고 보고한다[18]. 즉

자아탄력성은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 연구되어왔다.

최근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연구를 보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13]. 또한 자아탄력성이 미디어 중독으로 나아가는데 보호요인이 됨을 보고하고 있다[19].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3 부모양육태도 불일치

부모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일관된 태도로, 자녀의 인지,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특성이며[20]. 즉 부모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양육자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21]. 이에 선행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22].

부모양육태도 관련 연구들은, 초반에는 모의 양육태도 및 역할에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후 부의 양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부, 모 각각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23].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부모양육태도 일치 및 불일치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 간의 행동이 불일치할수록 자녀는 욕구불만 및 사회 부적응을 경험하고, 이에 성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다[24]. 또한 부모양육태도 불일치는 청소년 자녀들의 불안감을 높이고[25], 스트레스와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며, 불안을 높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며[26], 자녀들이 스트레스나 우울, 분노 등의 정서를 경험하며 사회적으로 부적응의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한다[27,28]. 이상의 연구들은 부모양육태도 불일치는 자녀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온 Young은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수용 받지 못할 때 인터넷에 중독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보고한다[29].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인터넷 및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일수록 자

녀들의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고[30,31], 부모의 역기능적인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8].

이처럼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양육태도 불일치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첫째,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라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의 차이는 어떠한가?

4. 연구방법

4.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S시와 K시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 사설학원 및 기관 등에 소속된 학생들을 임의표집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간 진행되었고, 무성의하게 응답한 38부를 제외하고 총 334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334명의 자료 가운데 스마트폰 미사용자 17명(5.1%)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17명(94.8%)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남학생 177명(55.8%), 여학생 140명(44.2%)이었다.

4.2 측정도구

4.2.1 스마트폰 중독 척도

스마트폰 중독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s-척도)를 사용하였다[15]. 본 척도는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 4개 요인 총 15문항이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형이며, 15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개발 당시 Cronbach α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74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시한 척도의 하위요인과 해당 문항 및 중독수준 판정기

준을 <Table 1>과 같다.

<Table 1> Criterion for judging of smartphone addiction

		The degree of smartphone addiction		
		High risk user group	Potential risk user group	General user group
	① Total	≥45	42-44	≤41
V a r i a b l e s	② first factor (daily disturbance)	≥16점	≥14	≤13
	③ third factor (withdrawal)	≥13	≥12	≤11
	④ fourth factor (tolerance)	≥14	≥13	≤12
Criterion for judging		① or ②-④ all	①-④ any one of all	①-④ all

*Sourc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Self-Rated Smartphone Addiction Scale for Youth

4.2.2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는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이 개발한 한국판 청소년용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32]. 총 5문항이며,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형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81로 나타났다.

4.2.3 부모양육태도 척도

부모양육태도는 허묘연이 개발한 척도를[33], 이정숙, 김준호가 수정, 보완한 척도[14]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 학대방치, 비밀관성 5개 요인 총 20개 문항이며,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형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양육태도 불일치는 부와 모 각각의 양육태도 값을 구한 후, 그 차이 값을 구하고, 이를 절댓값으로 환산하였다. 이정숙, 김준호의 연구에서 부, 모 하위요인의 Cronbach α 는 .60에서 .89까지 나타났고[14], 본 연구에서는 .63에서 .88까지, 부, 모 양육태도는 각각 .84, .75로 나타났다.

4.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중독수준과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와 Dunnett T3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이다. 고위험 사용자군 17명(5.3%),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50명(15.8%), 일반 사용자군 250명(78.9%)으로 나타나,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67명(21.1%)을 보였다.

5. 연구결과

5.1 연구 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중독수준

<Table 2> The degree of smartphone addiction

	The degree of smartphone addiction		
	High risk user group	Potential risk user group	General user group
n(%)	17(5.3%)	50(15.8%)	250(78.9%)
M(SD)	46.24(1.25)	42.80(.80)	34.46(5.01)

<Table 2>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중독수준

5.2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실태

<Table 3>은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실태 분석결과이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모든 집단에서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일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3시간 이상-5시간 미만'이 각각 59.8%, 4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일반 사용자군은 '1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매우 중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구입동기는 모든 집단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가 70%이상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s	Categories	High risk user group(n=17)	Potential risk user group(n=50)	General user group(n=250)	Total
		n(%)	n(%)	n(%)	
Using period (yr)	<1	3(17.6%)	9(18.0%)	43(17.2%)	55(17.4%)
	1-3	11(64.7%)	22(44.0%)	146(58.4%)	179(56.5%)
	3-5	3(17.6%)	17(34.0%)	51(20.4%)	71(22.4%)
	≥5	0	2(4.0%)	10(4.0%)	12(3.8%)
Using time in day(hr)	<1	0	3(6.0%)	24(9.6%)	27(8.5%)
	1-3	4(23.5%)	13(26.0%)	113(45.2%)	130(41.0%)
	3-5	10(58.8%)	23(46.0%)	87(34.8%)	120(37.9%)
	≥5	3(17.6%)	11(22.0%)	26(10.4%)	40(12.6%)
Significant	Insignificant	1(5.9%)	3(6.0%)	10(4.0%)	14(4.4%)
	Significant	2(11.8%)	4(8.0%)	45(18.0%)	51(16.1%)
	Average	2(11.8%)	11(22.0%)	93(37.2%)	106(33.4%)
	Very significant	12(70.6%)	25(50.0%)	94(37.6%)	131(41.3%)
	Necessary complement	0	7(14.0%)	8(3.2%)	15(4.7%)
The motive of buying	to follow the trend	1(5.9%)	10(20.0%)	40(16.0%)	51(16.1%)
	for information retrieval	2(11.8%)	3(6.0%)	27(10.8%)	32(10.1%)
	to help studying	0	1(2.0%)	4(1.6%)	5(1.6%)
	to communicate better	14(82.4%)	36(72.0%)	179(71.6%)	229(72.2%)
The most commonly used feature	Voice call	4(23.5%)	6(12.0%)	51(20.4%)	61(19.2%)
	Text message	1(5.9%)	5(10.0%)	14(5.6%)	20(6.3%)
	Internet using	2(11.8%)	10(20.0%)	38(15.2%)	50(15.8%)
	Listen to music, watching movies	3(17.6%)	9(18.0%)	57(22.8%)	69(21.8%)
	Entertainment such as games	3(17.6%)	5(10.0%)	12(4.8%)	20(6.3%)
	Social Network Service	4(23.5%)	14(28.0%)	77(30.8%)	95(30.0%)
	others	0	1(2.0%)	1(0.4%)	2(0.6)

<Table 4> Difference in ego-resilience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s	①High risk user group(n=17)	②Potential risk user group(n=50)	③General user group(n=250)	F	Scheffe
	M(SD)	M(SD)	M(SD)		
Ego-resilience	11.18(3.12)	16.38(3.58)	18.18(3.18)	40.583***	③>①,② ②>①

<Table 5> Difference in disagreement in the parents' rearing attitude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s	①High risk user group(n=17)	②Potential risk user group(n=50)	③General user group(n=250)	F	Dunnett T3
	M(SD)	M(SD)	M(SD)		
Disagreement in the parents' rearing attitude	17.18(5.10)	14.56(9.12)	12.07(5.04)	8.869***	①>③

해 스마트폰에 구입하려는 동기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사용기능 순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SNS’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 차이

<Table 4>는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본 분석결과이다. 자아탄력성(F=40.583, p<.001)과 부모양육태도 불일치(F=8.869, p<.001)는 스마트폰 중독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아탄력성은 일반 사용자군이 가장 높은 평균(M=18.18)을 보였고,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M=16.38), 고위험 사용자군(M=11.18)의 순서를 보이면서, 세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5.4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의 차이

<Table 5>는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의 차이를 알아본 분석결과이다. 부모양육태도 불일치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가장 높은 평균(M=17.18)을 보였고,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M=14.56), 일반 사용자군(M=12.07)의 순서였으며, 고위험 사용자군과 일반 사용자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수준별로 자아탄

력성과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수준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밝히고, 각 중독수준 특성에 맞는 예방과 치료적 접근에 대한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317명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은 고위험 사용자군이 5.3%,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15.8%, 일반 사용자군이 78.9%로 나타났다.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을 합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라 하며, 그 합은 21.1%로, 중독 위험군이 20.8%로 나타난 조규영, 김윤희의 연구와 유사하다[9]. 반면 이러한 결과는 이은정, 어주경과 김병년, 고은정, 최홍일의 연구에서 중독 위험군이 각각 26.7%, 27.8%였던 것[7,11],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25.5%를 나타내었던 것[1]보다는 낮은 결과이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3년과 2014년 초1, 중1,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스마트폰 전수조사’에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각각 17.9%와 13.2%로 나타난 것[34,35]과 금창민의 연구에서 15.2%로 나타난 것[5]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들은, 스마트폰 중독을 조사할 때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과 다양한 도구로 스마트폰 중독을 진단하고 이를 교차검증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문제들이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

는 현 시점에, 스마트폰 중독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의 개발과 이를 토대로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수준별 스마트폰 사용기간과 사용시간에 대한 분석결과, 사용기간은 세 집단 모두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전체 56.5%의 학생들이 이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3년 이상-5년 미만'의 비율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일반 사용자군은 각각 34%와 20.4%를 보인 반면, 고위험 사용자군은 17.6%를 보여 더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5년 이상' 사용 비율이 고위험 사용자군은 0%인데 반해, 다른 2개 집단은 4%를 보였다. 사용시간에서는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3시간 이상-5시간 미만'이 각각 58.8%와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일반 사용자군은 '1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은정, 어주경의 연구에서 중독수준별로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유사하였으나, 일일 사용시간에 있어 고위험 사용자군이 가장 많은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11]. 또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올라갔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7]. 사용기간과 사용시간에 대한 이상의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에 빠저드는 것은 사용기간 보다는 사용시간이 관련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스마트폰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 전체 대상으로 볼 때, '매우 중요'가 41.3%로 가장 높았다. 특히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매우 중요'가 각각 70%와 50%로 높은 비율을 보여,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경우 스마트폰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동기는 세 집단 모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가 70%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여,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지만, 다양한 기능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중독수준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지만, 실제로 구입하게 되면 다양한 기능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또래나 외부 사람들과의 관

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시기적 특성에 맞게,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자 하고, 이에 현재 80%가 훨씬 넘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34]. 반면 긍정적인 동기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청소년들이 일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면서,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일상생활 속에 장애와 내성,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이에 대해 주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위험 사용자군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더 높았다는 연구[13],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36]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시간 제한 등의 외적통제와 함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내적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물리적으로 제약하는 방안과 함께, 청소년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 관리할 수 있는 통제능력을 높여주는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라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위험 사용자군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일반 사용자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와 스마트폰 중독수준별 차이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반면 연구들은 부모양육태도 불일치가 청소년들에게 불안이나 스트레스, 정서적 혼란, 사회부적응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25,26].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불일치 할 경우 자녀들은 자기통제가 어려워지고,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고한다[37]. 이상의 연구들은, 부모양육태도 불일치는 청소년의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서의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부모양육태도 불일치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는 결과를 지지해준다. 즉 부와 모가 양육태도가 불일치하여 갈등 상황에 놓일 때, 자녀들은 자신으로 인해 부모가 갈등이 생긴 것으로 여기며 스트레스와 불안

등의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데[26], 이러한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쉽게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2,38].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위험 사용자군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선행연구[11]의 주장과 함께,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부와 모가 일치된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와 자아탄력성,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일일 사용시간 제한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사용시간을 규제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 스스로 설치 및 제거가 가능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보호자에 의해서만 관리할 수 있는 앱의 개발과 데이터 량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디톡스 문화의 확산으로, 학교나 가정, 주변 환경 속에서 전자기기로부터 벗어나는 시간과 환경의 문화를 사회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사회적으로, 혹은 학교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중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환경, 특히 부모양육태도의 일치를 통해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양육태도의 불일치로 인해 청소년들은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결과는, 부모가 서로 양육태도에 대해 일치점을 찾아 일관되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 중, 고등학생만을 임의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에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추후에는 더 많은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특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집단

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이 연구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NIA, 2013 The survey of internet addiction. Seoul: NIA, 2014.
- [2] K. H. Hwang, Y. S. Yoo, O. H. Cho, Smartphone overuse and upper extremity pain, anxiet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10, pp. 365-375, 2012.
- [3] H. S. Choi, H. K. Lee, J. C. Ha, The influence of smartphone addiction on mental health, campus life and personal relations-Focusing on K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er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3, No. 5, pp. 1005-1015, 2012.
- [4] B. N. Kim,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youth's socially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4, pp. 208-217 2013.
- [5] Chang-Min Keum, Research into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and Mental Health Problem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at Kore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 [6] NIA, 2012 The survey of internet addiction. Seoul: NIA, 2013.
- [7] B. N. Kim, E. J. Ko, H. I. Choi,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A focus on differences in classifying risk group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4, No. 3, pp. 67-98, 2013.
- [8] B. N. Kim, H. I. Choi, Effects of study overprotective parent's raising attitude on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addi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 29, No. 1, pp. 1-25, 2013.
- [9] G. Y. Cho, Y. H. Kim, Factors Influencing Smartphone Addiction in High School Students in B city.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26, No. 1, pp. 166-178, 2014.
- [10] Hyeon-Ok Jo, Differences in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Impulsiveness and Perceived Stress According to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2012.
- [11] E. J. Lee, J. K. Eo, The Differences of the Impulsivity and Parenting Attitud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Life-span Studies*, Vol. 4, No. 1, pp. 1-17, 2014.
- [12] M. R. Song, S. Y. Kim, The Relationship among Peer Attachment, Ego-Resilience and Mobile Phone dependency in Middle School Students. *Youth Culture publishes Forum*, Vol. 32, pp. 65-89, 2012.
- [13] Se-Hee Koo, A study on Attachment Factors and Addiction Tendency of the Smart Phone-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diliency-.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14.
- [14] J. S. Lee, J. H. Kim, The Impact of the Discrepancy in the Parents' Attitude towards Nurturing On the Perceived Self-Efficacy and Problematic Behavior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6, No. 3, 207-235, 2014.
- [15] NIA, Development of Korea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youth and adults. Seoul: NIA, 2011.
- [16] K. W. Shin, D. I. Kim, Y. J. Jung, Development of Korea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Seoul: NIA, 2011.
- [17] J. Block,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Vol. 53, No. 1, 1982
- [18] J. H. Block,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e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39-101, 1980.
- [19] Y. O. Nam, S. J. Le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Mental Health in Youth's Internet Addiction by the Addiction Typ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7, No. 3, pp. 195-222, 2005.
- [20] W. C. Becker,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s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2, No. 2, pp. 169-308, 1996.
- [21] J. H. Lim,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parenting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Outcomes on Self-Esteem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13, No. 1, pp. 135-151, 2006.
- [22] I. J. Choi, The Influence of Cultural Uniqueness of Parent-Children Relationship on Adolescent's Mental Health: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Vol. 17, No. 4, pp. 1059-1076, 2005.
- [23] J. H. Noh, H. J. Song, Influence of Disagreement i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in Childre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Vol. 4, No. 1, pp. 1-15, 2012.
- [24] Mi-Hyang Choi,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Rearing Attitude Consistency Between Parents to Children's Self-Efficac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gu University. 2002.
- [25] M. A. Bruch, R. G. Heimberg, P. Berger, T. M. Collins, Social phobia and perceptions of early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 Research*, Vol. 2, No. 1, pp. 57-65, 1989.
- [26] J. M Tschann, E. Flores, L. A. Pasch, B. V. Marin, Assessing interparental conflict: Reports of parents and adolescents in Europe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1, pp. 269-283, 1999.
- [27] R. E. Emery,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Vol. 9, No. 2, pp. 310-330, 1982.
- [28] J. F. Cohn, S. B. Campbell, Influence of maternal depression on infant affect regulation. In D. Cicchetti, Dante (Ed); Toth, Sheree, L. (Ed), (1992). *Developmental*

- perspectives on depression,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4. Rochester, NY, US: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1992.
- [29]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30] H. I. Jo,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Internet Use Motives on Internet Addiction: Self-Control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3, No. 4, pp. 269-287, 2011.
- [31] H. R. Lee, H. S. Doh, M. J. Kim, B. K. Park, Pathways from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o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Control and Depression/Anxiety,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Vol. 30, No. 2, pp. 97-112, 2009.
- [32] W. Y. Shin, M. G. Kim, W. J. Kim,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0, No. 4, pp. 105-131, 2009.
- [33] M. Y. Huh,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12, No. 2, pp. 170-189, 2004.
- [34] MOGEF, 2013 Study of Internet and Smartphone use in youth. Seoul: MOGEF, 2013.
- [35] MOGEF, 2014 Study of Internet and Smartphone use in youth. Seoul: MOGEF, 2014.
- [36] K. A. Jung, B. W. Kim, The Effects of the Ego-Resilience on the Smart-phone us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11, pp. 55-74, 2014.
- [37] J. S. Son, Family relation and character formation of children. Collection of dissertations of Sunkyunkwan University, Vol. 15, No. 1, pp. 191-215, 1970.
- [38] N. S. Kim, K. E. Lee, Effects of Self-control and Life Stress on Smart Phone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s and Statistics, Vol. 37, No. 2, pp. 72-83, 2012.

정 경 아(Jung, Kyung A)



- 2010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교육학석사)
- 2014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수료)
- 관심분야 : 청소년 진로 및 교육, 미디어 중독
- E-Mail : yeoeune@hanmail.net

김 봉 환(Kim, Bong Whan)



- 1985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상담자 교육
- E-Mail : bongwhan@sm.ac.kr